

## 추 모 사

완연한 봄 기운으로 실록이 충만한 소백산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되는 상월 원각조사 열반 37주년 추모 다례제에 참여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각 상월조사께서는 민족의 암울한 시기인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민족 분단의 혼란기를 겪는 시기에도 불법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의 삼대 지표를 마련하여 대한불교천태종의 중흥을 마련하셨습니다.

원각 상월조사께서 이곳 소백산에 구인사를 개창할 당시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쉽지 않은 깊은 산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산 100년이 되어가는 현재 이곳 구인사의 모습은 수많은 불자들이 참배하고 기도하는 명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정진하는 과정을 보여준 원각 상월조사의 깊은 혜안과 원력을 거울삼아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늘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전래 1,700년의 역사이래 정신적, 문화적 기반의 중심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 모든 사물에 불교의 유적과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기간 동안 수많은 조사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원력의 정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른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종교 사회속에 하나의 종교로 치부되고, 편향적인 모습에 깊은 성찰과 참회는 물론 더욱더 치열한 수행정진을 다짐하게 합니다.

서구사회에서는 동양의 깊은 정신세계와 평화 지향적 사상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통해 지구촌이 처한 여러 현안의 대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불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활해 나갑시다.

원각 상월조사 37주년 추모 다례제를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웃에 관심과 나눔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기 2555년 5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